해봉당 자승 대종사 주요 연혁

1954. 04	강원도 춘천 출생
1972.	해인사서 사미계 수지
1974.	범어사서 구족계 수지
1982. 07. ~1982. 12.	영월암 주지
1984. 05.~1986. 01.	수원포교당 주지
1986. 01.~1986. 08.	망경암 주지
1986. 01.~1986. 06.	총무원 교무국장
1986. 06.~1986. 09.	조계종 총무원 규정국장
1987. 08.~1988. 01.	영월암 주지
1988. 01.~1991. 03.	대덕사 주지
1991. 03.~1994. 01.	삼막사 주지
1992. 09.~1994. 11.	제10대 중앙종회의원
1994. 01.~1999. 12.	연주암 주지
1996. 11.~1998. 11.	제11대 중앙종회 사무처장
1997. 12.~2002. 11.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
1999. 11.~2000. 02.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2000. 02.~2002. 11.	제12대 중앙종회의원
2002. 12.~2005. 11.	제13대 중앙종회의원
2004.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2005. 11.~2006. 10.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2006. 11.~2008. 11.	제14대 중앙종회의장
2009. 11.~ 2017. 10.	제33 · 34대 총무원장
2019. 11. 11~ 2020. 02. 07.	상월선원 천막결사
2020. 10. 07~ 2020. 10. 27.	불교 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 10. 01~ 2021. 10. 18.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 3 · 4 · 5 · 7 · 8 · 10.	상월결사 평화방생순례
2022. 4. 23.	위례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식
2022. 12. 18.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총회
2023. 02. 09~2023. 03. 23	상월결사 인도순례
2023. 07. 06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창립
2023. 09. 05~2023. 09. 06.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
2023. 11. 11.	사부대중 전법대회
2023. 11. 27.	안성 칠장사서 소신공양



“부처님 법 전합시다” 화두 던진 원력의 화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 행장 및 업적

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11월 29일 경기 안성 칠장사에서 소신공양했다. 법납 51년, 세수 69세.

자승 대종사는 1954년 4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선원 안거를 시작으로 봉암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수원 포교당(現 수원사),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지낸 자승 대종사는 제10 · 11 · 12 · 13 · 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한 종단 발전을 견인했다. 특히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을 맡아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종회 운영 전반을 원만히 이끌었으며, 종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면서 중앙종회의 위상을 높였다.

사회를 향한 자비행 돋보여

이 같은 소통의 리더십으로 자승 대종사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종책모임 간 연대를 이끌어내며 당선됐다.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며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것은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 이었고, 이를 위한 길은 안으로 자성과 쇄신, 밖으로는 자비 정신 구현과 사회와의 소통이었다. 이는 자승 대종사의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이어온 우리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 ·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사처럼 자승 대종사의 취임 첫 행보 역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보듬으며 자비행을 펼쳤다. 대종사는 제34대 총무원장을 연임하면서도 지속적인 대사회 행보를 보였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성장 방문해 격려했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을 때에는 공권력의 침탈까지 견뎌내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

국내 · 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재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급파해 초기대응에 나선 것도 자승 대종사가 만들어 놓은 대사회 대응 시스템이다. 총무원장 재임 당시 국내로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지원 활동과 2016년 울산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가 있다. 국외로는 필리핀 하이옌 태풍, 네팔 대지진, 미얀마 홍수 피해 구호활동 등이 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으로 이어져 이재민 및 유가족들의 자립에도 기여했다.

자승 대종사는 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동위원회’ 를 출범시켰으며,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를 화쟁 정신으로 교화하고자 ‘화쟁위원회’ 를 설립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종단 내부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취임 초 터진 승려 도박 사건을 ‘자성과 쇄신 결사’ 를 통해 종단 청정성 회복 운동을 펼쳤다.

종단의 수행 종풍 선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제도를 시행했고, 이는 현재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됐다.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의 포교 도량 건립의 초석을 놓은 것도 자승 대종사였다. 자승 대종사가 세종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종교부지를 확보한 것이 세종 광제사와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승 대종사는 성보문화재 보존과 환수 활동의 기틀도 세웠다. 2014년 경찰청 ·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을 체결한 데 이어 수십 점의 도난 문화재를 환수했다. 또 국외로 반출된 불교문화재 역시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환수해 환지본처에 앞장섰다.

자승 대종사의 ‘전법 원력’ 시작은

일생에 걸쳐 자승 대종사의 모든 관심은 ‘전법’ 에 있었다. 자승 대종사는 2017년 10월 2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한 퇴임 만찬에서 재가불자들에게 “ ‘1인 1불자 만들기’ 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한국불교는 불자 감소의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힘은 불자들이 주변 가족, 이웃부터 불교를 접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중심에 서서 1인 1불자 만들기에 솔선수범 해주길 바랍니다. 한국불교가 세계화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가 더욱 더 힘써주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불교계 기자단 간담회서)

자승 대종사의 전법에 대한 열정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1984년 수원 포교당 주지로 살던 당시 자승 대종사는 총무원이 소재한 종로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러면 꼭 개신교인이 승복을 입은 대종사 앞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승 대종사는 ‘우리는 참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소극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후 1986년 대덕사 주지로 부임해서는 오전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법에 나섰다.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냥 가가호호 다니며 기도와 축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으로 첫 법회에서는 5명이 오던 것이 1년이 지나니 150명으로 늘었다. 이후 자승 대종사에게 전법은 생활이 됐다.

“전법에 몰두하니 불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포교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전법행은 재무부장, 총무부장, 종회의장을 할 때도 꾸준히 했고, 총무원장에 재직할 때에도 한결같이 한 일입니다. 내 발자취를 찾아보십시오. 저는 전법의 중요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불교계 기자단 간담회서)

11월 29일 칠장사서 소신공양

12월 3일 서울 조계사서 영결식

재적본사 용주사서 다비식 엄수

조계종 33·34대 총무원장 역임

‘자성과 쇄신 결사’로 종단 안정

사노위, 화쟁위 설립…화합 견인

퇴임 후 아홉스님 천막결사 비롯

상월결사 이끌며 ‘불교중흥’ 발원

올해 초 1167km 인도 도보순례

‘대학생 전법’ 통한 인재양성 강조

전법 원력 결집을 위한 초석들

퇴임하자마자 자승 대종사는 수행자로서 본분을 찾기 위한 수행 정진에 들어갔다. 이는 전법 원력을 결집하기 위한 초석들이었다. 퇴임 직후 2017, 2018년 동안거를 백담사 무문관에 방부를 들인 대종사는 2019년 세 번째 동안거를 위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정진으로 지냈다.

당시 천막결사 정진엔 회주 자승 대종사를 비롯해 선원장 무연 스님, 입승 진각 스님, 한주 성곡 스님, 지객 호산 스님, 지전 재현 스님, 정통 심우 스님, 시자 도림 스님, 다각 인산 스님 등 아홉 스님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에 매진했다.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진 대중의 정진력은 날카로워져 갔다.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곡기를 끊고, 두부 4쪽 · 방울토마토 3쪽 · 나물무침 2젓가락만 섭취하는 스님도 있었다. 70여 일이 지날 즈음에는 대중스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정신을 차린 스님은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같은 정진력을 이끈 것은 자승 대종사이었고, 이는 대중들을 감화시켰다. 2019년 11월 11일 입재 이후 회향까지 10만여 명의 대중이 전국에서 찾아와 결사에 동참했고, 체험관에서 무문관 수행을 한 불자들도 110명에 달한다.

2020년 2월 7일 닫혀있던 천막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아홉스님들이 세속으로 나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회향했지만, 아홉스님의 정진은 불교 중흥의 기치 아래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 · 인도순례(2023)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상월결사 그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특히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를 슬로건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1167km를 걸은 인도순례는 수행과 전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7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쳤다.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단상에 오른 자승 대종사는 회향사를 통해 대중에게 다시 한번 ‘전법’ 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퇴임 이후 자신이 이끈 천막결사 수행과 만행결사 자비순례 · 삼보사찰 천리순례 · 평화방생순례 등 모든 것이 전법 원력을 추진하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전법하라’ 입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자승 대종사가 던진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이내 한국불교의 화두가 됐고, 스님은 ‘대학생 전법’ 에 전법 원력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7월 6일에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구성하고 ‘1교구-1대학 지원’ 목표를 세웠다.

9월 5~6일 열린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에서는 “직접 탁발해 전법기금을 모으겠다”는 원력을 내보였다. 11월 11일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통해서는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해 대학생 전법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11월 27일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계 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소회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 자리에서 자승 대종사는 “불교 동아리 설립 현황 등을 직접 살피면서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선순환 모델 구축과 전역 후 불자장병 신행 독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불교홀대’ 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종단에서 항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인사에 불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불교계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에 불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생 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화두와 실천 과제인 ‘대학생 전법’ 을 대중에게 제시한 자승 대종사는 11월 29일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돌연 적멸로 나아갔다.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진 자승 대종사의 빈소는 총본산 조계사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2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엄수됐으며, 다비식은 대종사의 재적본사인 제2교구본사 용주사 연화대에서 봉행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